

# K-칩스법, 국회 관문 넘었다… 반도체株 ‘꿈틀’ 훈풍 부나

반도체 관련주에 다시 훈풍이 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반도체 업체들에게 세제 혜택을 지원한 K칩스법이 국회상임위원회의 관문을 넘은 데다 악화일로에 있던 반도체 업황도 바닥에 근접한 것으로 분석하면서 향후 반도체의 주가 전망을 긍정적으로 내다보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삼성전자 주가는 전일 대비 1.96% 오른 6만2300원에 마감했다. 같은 기간 SK하이닉스는 1.84% 상승한 8만8500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이 반도체 업체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한 데다 반도체 업체들의 감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6만

KRX, 삼성전자 주가 1.96% 상승  
SK하이닉스 1.84% ↑ 8만8500원

“삼성전자 보유 디램 재고 21주 상회  
상황 타개 위해 감산수준 확대 예상  
1분기 DS실적 바닥, 2분기 개선될 것”

선 위에서 소폭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2거래일 연속 오르며 87000원선에서 움직이고 있다.

특히 인위적인 감산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던 삼성전자가 실제로 반도체 생산 감산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를 키우고 있다.

도현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

전자가 감산 계획을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이미 삼성전자는 상당한 규모로 감산을 진행 중”이라며 “일부 테스트 및 부품 업체에 의하면 1분기 삼성전자에서 수주한 물량이 30% 이상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삼성전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디램(DRAM) 재고는 21주를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경쟁사와 비교

해서도 높은 수준으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삼성전자가 감산 수준을 오히려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이 1분기 바닥을 거쳐 2분기부터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광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반도체(DS) 부문 실적은 올해

1분기를 바닥으로 2분기부터 점진적 개선을 전망한다”며 “메모리는 신규 서버용 CPU 양산 공급 본격화에 따른 수요 회복과 기존 계획 대비 하향 조정된 공급 증가율을 기반으로 2분기부터 출하량의 증가, 가격 하락 압력 완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미국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조항의 세부 규정을 발표한 것도 반도체 관련주 주가 움직임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평가했다.

도현우 연구원은 “중국 팹에서 5% 수준의 증산은 허용했다”면서 “공정 전환으로 인한 생산능력(Capa) 감소를 감안했을 때, 팹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최악의 규제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 올 스펙합병기업 16곳… 옥석가리기 심화

한국거래소, 공모가 하회 종목 속출  
수요예측 실패에 상장 철회 스펙도  
증시부진·심사강화에 투자심리 위축

올해 스펙(SPAC·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상장을 택하는 기업이 역대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공모가를 하회하는 종목이 속출하고, 수요예측 실패로 상장 철회가 이뤄지는 등 옥석가리기가 심화되는 분위기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스펙 합병을 통한 상장을 완료했거나 승인을 추진하는 곳은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이미 합병한 기업은 5곳이며, 현재 11개사가 거래소 심사를 기다리고 있거나 심사 승인을 받고 상장 준비 중이다. 스펙 합병 상장사 수는 ▲2021년 15곳 ▲2022년 17곳으로, 아직 3월인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스펙 합병 상장 기업은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스펙은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로 발행주식을 공모한 뒤 그 자금으로 비상장사를 인수·합병(M&A)하는 것을 유

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다. 상장 스펙은 상장한 지 36개월 안에 실재하는 기업과 합병해야 한다.

만일 스펙이 합병에 실패하더라도 공모가와 연평균 1.5% 수준의 이자를 돌려주고 청산돼 투자자들에게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기업 입장에서 지분 희석을 최소화할 수 있고, 증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다.

반면, 올해 상장한 종목 중 일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등 종목별 차별화가 이어지고 있다. 상장 종목은 지난 22일 종가 기준 ▲미래에셋드림스펙1호 9450원 ▲유안타제12호스펙 2015원 ▲삼성스펙8호 9790원 ▲하나26호스펙 2000원 ▲엔에이치스펙28호 2085원 ▲미래에셋비전스펙2호 2050원 ▲유안타제13호스펙 1995원 등이다.

미래에셋드림스펙1호는 지난 2010년 국내에 스펙 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장 종목 중 가장 큰 700억원 규모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달 초 진행된 최종정

약경쟁률이 0.46대 1로 집계되며 부진한 행행을 보였다. 수요예측 실패에 상장 철회를 한 스펙도 등장했다. KB스펙24호는 공모금액 400억원 규모였으나, 지난 9일 기관 수요예측에서 부진한 성적을 거두자 상장을 철회했다.

증시 부진에 따라 시장 상황이 불안한 데다 최근 금융당국이 스펙 증권신고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나서자 투자심리가 위축됐다는 평가다. 설립에서부터 경영, 합병까지 주관하는 증권사 등 스폰서들이 합병 성공을 우선시하며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스펙 합병이 반드시 높은 수익으로 연결되는 게 아니고 합병이 성사돼도 투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합병가액 산출 근거와 합병 자문인의 과거 자문 내역, 합병 후 주가 현황, 기관투자자들의 의견 권 비율 등을 합병신고서 등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 다올금융그룹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

다올금융그룹이 계열회사 다올인베스트먼트 매각을 완료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3일 다올인베스트먼트 인수를 위한 잔금 전액을 납입했다.

다올금융그룹과 우리금융지주는 지난 2월 주식매매계약서(SPA)를 체결한 후 금일 최종적으로 다올인베스트먼트 지분 52%에 대한 매매금액 2125억원이 납입 완료됨에 따라 거래가 종결됐다.

이번 거래 종결로 다올투자증권은 2100억원 이상의 유동성자금 확보됐다.

다올금융그룹은 “다올투자증권의 재무적 안정성이 크게 향상됐고 시장 대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라며 “매각을 통해 확보된 자금은 사업 안정성 강화와 신성장 동력 발굴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 KB증권 해외주식 이용고객에 무료 서비스

KB증권이 오는 4월 1일부터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손익 합산금액이 연간 기본공제액인 250만원을 초과하는 투자자는 양도소득세(22%) 과세대상자가 되어 매년 5월, 연 1회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신고·납부절차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KB증권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 KB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KB증권

신고대행 서비스는 KB증권 해외주식 이용 개인고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접수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다. 가까운 지점에 내방해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타 증권사 보유 계좌도 함께 신고할 수 있다. /박미경 기자

## 이베스트증권 작년 부과대상 고객, 홈페이지 접수

이베스트투자증권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세무법인과 제휴해 고객의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고, 납부 세액을 이메일로 통지해 주는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 계좌를 보유하고, 2022년에 해당 계좌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고객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 12일까지이며, 이베스트투자증권 홈페이지, HTS, MTS에서 접수 가능하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한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2% 세율로 부과된다.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박미경 기자

## NH투자, 프리미어 블루 CEO 포럼 개강

‘새로운 시대의 투자와 직관’ 특강

NH투자증권이 2023년도 ‘프리미어 블루(Premier Blue) CEO 포럼’을 개강했다고 23일 밝혔다. 프리미어 블루 CEO 포럼 개강식은 22일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CEO(최고경영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개강 축사를 맡았다.

프리미어블루CEO의 개강식에서는 김광석 한양대학교 교수가 ‘새로운 시대의 투자와 직관’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이후 매일 진행되는 포럼에서는 기업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 금융 트렌드뿐 아니라 리더를 위한 인문교양 강화와 일상생활 속 교양 강의를 통해 다양한 경제 인사이트를 전달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이 지난 22일 서울 파르나스호텔에서 열린 프리미어 블루 CEO 포럼 개강식 축사를 하고 있다. /NH투자증권

할 예정이다.

전체 특강은 7개월 과정이며, 회차마다 3부 강의로 진행된다.

/박미경 기자



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로, 3~5년 동안 매년 최대 600만원을 납입하면 납입금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미경 기자